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최현우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파견 학기	2023년 1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응용과학 대학교 (Hochschule Heilbronn, HHN)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해외 생활의 꿈이 있어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었다. 하지만 코로나와 더불어 큰 산불 때문에 해외 거주 꿈이 잠시 접어뒀었다가 마지막 학기에 기회가 돼서 지원하였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본교와 파견교의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모르면 재차 물어보면서 준비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 비자발급 절차

서류 준비할 때, 파견교에서 진행하는 Buddy program 신청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독일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International Office에서 비자발급을 도와준다. 다른 교환학생들과 다 같이 Immigration Office(정확히 기억 안 남)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알려주는 대로 준비해가면 아무 문제 없다.

- 비자에 스티커랑 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스티커는 약 50유로, 카드는 약 100유로. 100유로 달라고 하면 비자를 스티커로 받고 싶다고 말해서 돈 아끼자.
- 독일에서 비자 받으려면 보험 가입은 필수다. 파견교에서 주선해주는 보험은 공보험인데 안전하긴 하지만 비싸다.(한 달에 약 15만원) 나는 그래서 사보험에 가입했다.(한 달에 약 4만원?) 본인 취향 맞게 고르자.
- 비자 받으려면 총 두 번 Immigration Office에 가야한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다같이 가기 때문에 따로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두 번째 약속은 본인이 스스로 잡아야한다. 약속을 미리미리 잡기를 추천. 만약 약속을 늦게 잡아서 기존 90일을 넘기게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따로 Immigration Office에다가 메일로 급하게 약속을 잡고 싶다고 부탁해야 한다. 나도 그랬다.

* 항공권 구입

- 키세스에서 인천 - 프랑크푸르트 (1회경유) 왕복권을 구매했다(약 91만원). 근데 Stuttgart 공항이 더 가깝다는 사실을 독일 도착해서 알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Flix 버스타고 하일브론으로 왔다. (약 2시간)
- 혹시 기숙사 입주 날짜보다 일찍 도착한다면 하일브론 내에 학생전용 호스텔?있으니까 참고.

*** 수강신청**

한국에 있을 때 전공수강신청 목록을 보내준다. 이 때 신청 못해도 괜찮다. 독일가서 다시 한 번 신청한다. 교양같은 경우는 전공관계없이 원하는 수업이 있으면 그냥 가서 들으면 된다. 그리고 수업들을 들어보고 안맞으면 그냥 시험신청을 안하거나 안나가면 된다.

-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난이도는 더 쉽다. 파견교 학생들과 매칭시켜주는데 잘 알려주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

아마 한국에선 접속이 안될텐데 splan.hs-heilbronn.de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표 관리를 할 수 있다.

ilias.hs-heilbronn.de 사이트는 한국의 원스톱서비스 같은 사이트다. 수업자료 및 메일 등등 웬만하면 여기서 다 해결가능하다.

*** 기숙사 신청**

이 또한 파견교가 안내하는 대로 신청하면 별 문제 없다. 독일 오기전에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은지 물어본다.(어떤 문서 안에서 체크했던 것 같음)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 Sontheim campus & Bildungs campus**

첫 번째 손하임 캠퍼스는 주로 공대생들이 수업을 듣는 곳이고 빌둥스 캠퍼스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 기후**

오기전에 한국보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할 줄 알았다. 사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3,4월은 생각보다 너무 추웠다. 얇은 겂옷만 챙겨와서 맨날 벌벌 떨거나 두겹,세겹씩 겂쳐입고 다녔다. 한여름에는 한국보다는 덜 더웠다. 한국에선 더워서 숨막히고 땀나고 그랬다면 독일에선 선풍기 하나로도 견딜만하다. 그리고 여름에 해가 22시쯤 되면 진다.

*** 주변환경**

하일브론은 먹고 살만한 정도의 작은 도시다. 없는 게 없긴 한데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다. 치안도 좋고 거리도 깔끔했다. 주변국으로 여행 가기도 나쁘지 않았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 Deutsch A1 : 독일어 제일 기초 수준의 수업. 보통 같이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듣는다. 무려 5학점이 나 주는 수업이라 들었다.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이 수업의 교수님은 그리 잘 가르치지는 않았다. 쪽지 시험 1번, 본 시험 1번, ppt 발표 등으로 성적을 준다.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교수님만 빼고

- Business English B1 : Pfannebecker라는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았다. 참여형식의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며 최대한 맞춰주시려고 하고 수업도 재밌었다. (2학점)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보통 2인 1실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방은 분리되어 있다. 기숙사 건물은 Mas-Planck-str. 27과 31 두 군데가 있고, 혼자 따로 쓰는 곳도 있긴 한데 비싸다..

27 : 엘리베이터 有, 한 달에 약 300유로, 좁다

31 : 엘리베이터 無, 27에 비해 넓다(한 1.5배?), 세탁실 有

외식비는 한국보다 비싸고 마트 물가는 비슷하다. 그래서 보통 요리를 해먹는데 주방에 연기감지가 있으니 주의하자. 주변에 마트는 여러 군데 있다. Netto, Ridl, Edeka, kaufland 등이 있는데 Netto가 제일 싸고 가까워서 애용했다. 아시아 마켓은 역 주변의 Laomi와 Ds asia market을 주로 이용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하일브론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1. 버디프로그램 ; 같은 과 독일인 친구를 1:1 혹은 1:2로 매칭시켜줌. 난 처음에 수강신청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
2. 멘토/멘티 프로그램 ; 교환학생이라면 멘티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2학점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Full-time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추천.
3. asta ; 하일브론 학생회인데 주로 행사를 담당한다. 예시로 파티를 주최하거나 체육대회 등 인스타 팔로우를 하면 소식을 얻을 수 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 동아리가 여러 개 있다. 다만 인기종목(축구)는 선착순으로 신청해야한다. 보통은 3,4주 미리 신청해놓는다.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asta에서 확인하고 신청해보길 추천.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 이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고 한다. 만일 회화를 늘리고 싶다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자.

모르면 물어보자. 생활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많이 생긴다. 주변 버디나 멘토들에게 물어보자. 외국인 친구들이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하일브론에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나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교환학생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영어 성적도 얻을 겸 토익스피킹이나 오픽 공부할 겸 영어 공부해가자. 가기 전에 공부하고 간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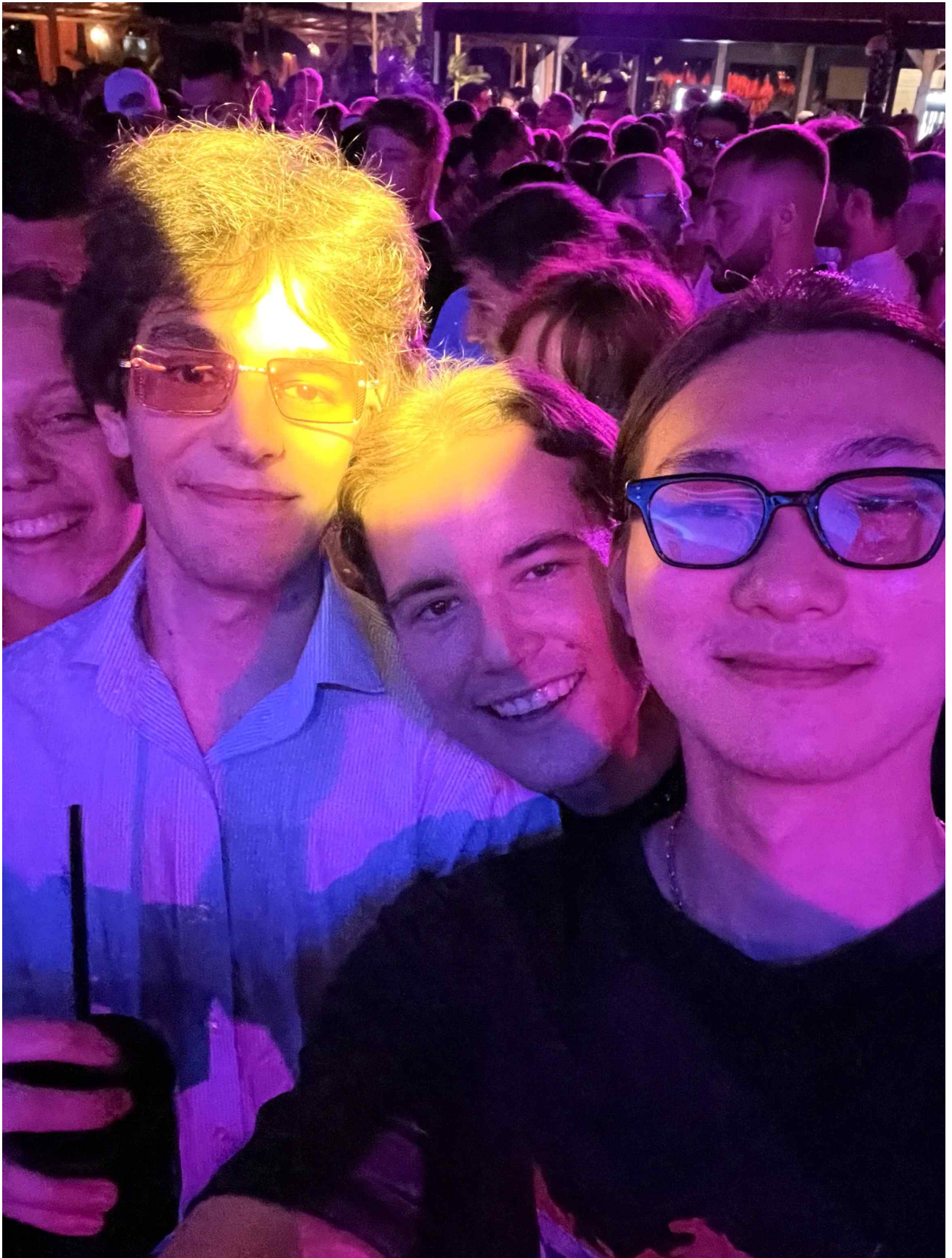
여러 문화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몰랐던 다른 나라의 문화나 생활 방식을 알아가는데 교환학생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고 느꼈다. 비록 짧은 시간 외국에 있었지만,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어디서든 적응해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다. 독일어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영어 회화 실력도 향상되었다. 특히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겨서 좋다.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가려고 고민한다면 주저 말고 갔다 오는 것을 추천한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BeRe.al/marcelasaenger](https://bere.al/marcelasaenger)